

## 조현정 회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회의' 참석



협회 조현정 회장은 지난 1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관계 기관회의'에 참석해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개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협회 부산지회 출범



협회 부산지회로 출범하는 부산벤처기업협회의 창립총회가 지난 1월 17일 부산 해운대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조현정 회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등 내외 인사 및 회원사 150여 명이 참

석했다. 부산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창립준비위원장인 화창SSC 오권석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부산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1월 협회 주최로 열린 '부산지역 벤처기업을 위한 경영클리닉'에서 지역 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격적으로 결성을 준비해 왔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방소재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지역별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창립총회의 사전행사로는 '벤처기업의 경영혁신전략'에 관한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한편, 사무국이 위치한 부산이노비즈센터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벤처기업협회 개소식이 열렸다.

## '2006 벤처 신년하례식' 개최



협회 등 벤처 유관단체는 지난 1월 16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으로 '2006 벤처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조현정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송혜자 회장 등 벤처 관련 단체장과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벤처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현정 회장은 신년사에서 "벤처가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올해 벤처기업들이 경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벤처의 100%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병패 건배 제의를 하고, 벤처업계의 재도약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박 터뜨리기 행사'가 진행됐다.

## 벤처홍보네트워크, 모금회에 성금 33만원 기탁

벤처홍보네트워크(위원장 박근우 안철수연구소 커뮤니케이션팀장, 이하 벤홍넷)는 지난 연말 회원 소성품을 경매하여 얻은 수익금 33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벤홍넷은 벤처기업 홍보담당자 250여 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홍보모임으로 정보교류, 교육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상호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벤처 관련 이슈 메이커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벤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회원 간의 친선뿐 아니라 이웃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 온 벤홍넷은 지난해에도 경매 수익금 34만 5000원을 모금회에 기탁했다. 당시 모아진 기금은 인천 YMCA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요보호프로그램인 '꾸러기 교실'에 전달된 바 있다.